

의료 취약 전남... ‘지역필수의사제’ 첫발도 못떼고 좌초 우려

보건복지부 7월부터 4개 道 시범사업
전남 24명 모집 나섰지만 지원자 ‘0’
전문의 감소·정주여건 낙후 복합작용
의대·대학병원 없어 ‘낙후의 악순환’
道 “요건 완화없인 정상추진 불가능”

7월부터 의료취약지 전남에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가 시범 도입됐지만 실제 의사 모집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시작도 못한 채 좌초하는 것이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낙후된 정주여건·부족한 지원책 등이 의사 모집 실패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지역필수의사제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자격 완화와 전남도·사업수행 의료기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2~5년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내 필수 의사 확보 지원을 통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지역 연결적 의료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11일부터 3월7일까지 실시한 지역필수의사제 공모에는 12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전남도·강원도·경



35도 훌쩍 ‘이글이글’ 불벼더위

최고기온 35도를 훌쩍 넘는 불벼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도로에 지열로 인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기상청은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에 내려진 폭염 특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다. ▶관련기사 7면

남도·제주도 등 4개 광역지자체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범 사업 대상지역에는 각각 24명 분의 필수 과목 전문의 지역근무수당이 지원된다.

시범 사업은 이달 1일 시작됐지만 4개 지역 모두 의사 인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전남도와 경남도, 제주도 등 3개 지자체엔 단 한 명의 신청자도 없었다. 강원도만 일부 전문의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을 올해 신규 채용한 ‘전문의 취득 5

년 이내’ 의사로 한정하면서 의정 갈등과 전문의 감소 추세 속에 지방 의료기관 인력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는 전남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남지역 사업 수행 기관은 목포한국병원, 목포시의료원, 성가톨릭병원, 순천의료원 등 4곳이다.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취약한 의료 현실이 오히려 지역필수의사제를 가로막는 ‘낙후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반면, 강원도의 지역필수의사제 사업 수행기관은 강원대학교병원·한림대학교병원 등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릉아산병원으로 전남과 대조를 이룬다.

경남도 역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삼성창원병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등 사업수행기관 전체가 상급종합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이 서울과 묶인 제주 상급종합병원은 없지만 대학병원인 제주대병원이 사업수행기관에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의사 유입을 위한 전남도의 지원책

또한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전남도는 의사 확보를 위해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연계한 주거, 연수·연구비 지원, 문화·여가 시설 활용 등 생활인프라 지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복지부 지원 지역근무수당을 제외하면 예산 미관성 등을 이유로 올해 지원은 물건너간 상황이다. RISE 사업도 수행의료기관 4곳 모두 대학과 연계 사업이 없어 규정상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2면에 계속

/양시원 기자

市·道, ‘서남권 바이오헬스복합단지’ 힘 모은다

내일 국회서 ‘전략 포럼’ 공동 개최

의료기기·백신 융복합 ‘시너지’ 기대

특별법 개정·국정과제 반영 등 논의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재명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및 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인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광주시·전남도는 7일 “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안도겸·전진숙·신정훈·서미화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시·전남도가 공동 주관한다.

포럼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바이오헬스 관련 기업·학계 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에서는 신경 K-헬스미래추진단장이 ‘서남권 바이오헬스복합단지 필요성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강대희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이 복합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토론자는 최종일 조선대학교 교수,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 이재중 박셀바이오 대표,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정과제 반영을 통한 ‘바이

오헬스복합단지’의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광주시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산업을 지속 육성하고 있다. 전남도는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기반으로 백신·면역치료 분야 의약품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양시·도는 특화 분야 융복합을 통해 의료기기·의약품 연계 제품 개발과 지원 기반시설(인프라) 공유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저비용·강소형 바이오헬스복합단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서남권 복합단지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의지를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의료산업 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라며 “국정과제 반영을 통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알림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아카데미 8강

오늘 오후 6시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
유성환 서울대 교수 ‘피라미드의 비밀’

광주매일신문은 광주·전남 각 분야 리더에게 최고 수준의 강의와 네트워크 장을 제공하는 ‘제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8강을 8일 개최합니다.

8강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라마다 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유성환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이어갑니다. 유 교수는 ‘피라미드의 비밀’을 주제로 고대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의 건설과 그곳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집트 전문가인 유 교수는 미국 브라운대학교 이집트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2013년부터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에서 고대 서아시아 전반의 문명과 역사, 언어와 예술, 종교와 문화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 교수는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를 졸업한 뒤 5년간 전문 통번역사로 활동하던 중 우연히 고대 이집트 석각문자의 매력에 빠져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사문학 작품과 장례문서, 역사적 비문, 의학 파피루스 등과 같은 고대 이집트의 주요 원전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문헌학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KBS ‘역사저널 그날’, tvN ‘벌거벗은 세계사’ 등을 통해 대중과 만나고 있습니다.

▲일시=2025년 7월8일(화) 오후 6시
▲장소=라마다 플라자 충장호텔
▲강사=유성환 서울대 교수 ‘피라미드의 비밀’

Today	
내년 지방선거 누가 뛰나... 화순군수	5면
자치구 ‘공익소송 지원’ 실효성 있나	6면
KIA, 선두 한화화 승차 좁히기 총력전	16면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사통팔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트 전달력 탁월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04 교차로 중심지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차량, 보행자 모두에게 높은 노출 효과

▶ 백운광장 일대 교차로 통행 차량 약100,000대, 푸른길 버킷지 이용자 수 약2,000~3,000명으로 차량 승차 인원 및 보행자 등 하루 수십만명 노출 효과 추정

전광판 사진

원거리

근거리

위치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 (봉선동, 남구청)

광주매일신문

☎ 광고문의 062) 650-2070

CMYK